



平山申氏宗報

(04555)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로 22 평산신씨대중중
TEL : 02-776-6111, 6151, 7978 · FAX : 02-776-7990
홈페이지 www.pyeongsan.com · E-메일: pyongsan777@naver.com

출판소 033-243-2076
표창재 053-985-1330
웅산단 061-363-1495
덕양서원 010-8762-7799



발행인 신철수
편집인 신금철
인쇄인 송은하



제217차 상임이사회 개최



제217차 상임이사회를 6월 7일 11시 한일옥(구 한일관) 301호실에서 개최하고 상식, 갑식 명예회장과 상임이사 제적위원 31명중 24명이 참석하였다.

성원보고 후 개회를 선언하고 철수(澈秀) 대중중 회장은 인사에 앞서 새로 선임된 서울화수회장(正龍), 부산·경남화수회장(昌烈) 광주·전남화수회장(士鉉) 인천시화수 회장(重均)을 소개한 후, 인사말에서 참석해 주신 상임이사께 그 동안 성원에 감사드리고 개인적으로 지난해는 어려운 한해였다 회고하면서 장군단 비문(碑文) 건은 덕양서원 인현 회장과 대중중이 협의하여 원만히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하고 안전을 상정하여 여러분의 동의를 얻어 추진 하려고 한다 하였다. 이어 상식 명예회장의 축사에서 대중중이 종원들과의 소통에 어려움이 있지만 당면한 문제들을 상호 양보하는 미덕으로 해결하자 하였고, 갑식 명예회장의 간단한 인사가 있었다. 이어 보고사항으로 “평산신씨 시조 장절공 종중” 도록 건은 대중중 1100년 기념사업회 역사·문화분과위원회는 춘천기념관과 대중중에서 소장하고 있는 문헌들이 사각지대에 훼손 멸실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전문연구기관의 체계적인 조사 필요성을 절감하고 조상들이 남긴 기록 유산들을 가까이에서 접하고 온고지신해야겠다는 사명감으로 울곡연구원에서 도록을 발간하게된 경위를 보고하였다.

이 과정에서 소통의 부족으로 종원들의 도록 명칭을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는 우(愚)를 가져 왔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울곡연구원과 협의 중에 있으므로 양해를 당부드린다고 하였다. 이어 철수 회장은 의안 제1

호 장군단 징계처분 취소의 건을 상정하고 피징계자 4명을 대표하여 인현 회장에게 신상발언을 하도록 한 후, 총무국장의 추진경위, 징계처분 취소의 필요성과 향후대책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었다.

이어 회장의 부연설명 후 상임이사들의 질의응답으로 의견을 듣고 표결에 붙여 찬성 22명, 기권 1명, 반대 1명으로 장군단 징계처분 취소 건을 가결하고 비문(碑文)의 문안작성과 검토를 위하여 각 분과위원장, 상임이사 몇 분이 참여하는 임시위원회 조직을 구성하여 빠른 시일내 비(碑) 문안을 작성하여 상임이사회에 보고하기로 하고 폐회를 선언하였다.

명예회장, 고문 간담회 개최



대중중은 제24대 회장 임기가 시작됨에 따라 5월 10일 11시에 회의실에서 명예회장, 고문님을 모시고 상견례를 겸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에 앞서 철수(澈秀) 회장은 명예회장, 고문을 대표하여 새로 추대된 흥균(興均) 전 제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회장은 인사를 통해 “지난 4월 1일 부로 제24대 회장의 임기가 시작되었으므로 명예회장님과 고문님께 시작을 알리고 인사차 모시게 되었습니다”라 하고 “이 때까지 대중중 역대 원로님들께서 이룩하신 송조돈목의 정신으로 앞으로 3년간 재임 중에 초지일관 사심 없이 정직하고 정당하며 공평한 원칙을 가지고 대중중 운영을 열심히 하고자 하니 성원해주시라”는 부탁을 하였다.

이어 당면한 장군단 소송 건에 대해 징계처분 취소

의 필요성과 대안을 설명하였고, 지난 5월 4일 상임이사에게 배부된 도록은 율곡연구원에서 문체부 예산지원으로 강원권 국학진흥 및 지역 전통 문화사업으로 발간된 “평산신씨 시조 장절공 종중” 도록 발간 경위를 설명드리고 배부한 사실과 배부 계획을 보고드리는데 과정에서 도록 명칭이 규약에도 없고 내용을 모르는 종원들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배부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회수하고 율곡연구원과 협의하여 시정하도록하겠다고 하였다.

정·부회장 및 감사 연석 간담회



대중중은 2023년 5월 24일 11시 제24대 임원 구성에 따른 위촉된 부회장 10명과 선출된 감사 3명으로 정·부회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에 앞서 새로 위촉된 부회장을 대표하여 동하 부회장에게 위촉장을 전달하였다. 대중중 회장(澈秀)은 인사말에서 오늘 간담회는 상견례를 겸한 대중중 현안에 대해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고자 한다 하고 먼저 1100년 역사·문화분과 위원회가 주관하여 율곡연구원이 추진한 강원권 국학진흥사업으로 추진한 지역 전통문화 보존을 위해 춘천기념관 문헌과 대중중에서 소장한 문헌을 2회에 걸쳐 차람해 주고 시조장절공 도록 발간을 요청하였다. 이에 율곡연구원은 자료조사위원회와 자문회의를 거쳐 문헌의 사료적 가치를 인정하고 강원 영동지역에서 영서지역으로 사업이 확대되면서 그 결실을 보았다. 이는 문체부 예산으로 2022년에 확정된 “평산신씨 시조 장절공 종중” 도록을 포함한 3개 문중이 발간되었는데 이후 도록 명칭을 “평산신씨 대중중”으로 명칭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이미 문체부에 보고되어 종결된 사업으로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따라 대중중은 기 배부된 도록을 회수하여 활용방안을 찾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어 장군단 소송 사건 경과를 설명하고 비문(碑文) 문제점 해소방안, 징계취소 및 분안 소송 건 등 부회장, 감사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소통의 기회를 가졌다.

결론적으로 화합차원에서 쌍방이 윈윈히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제1·2차 제례·계보위원회 개최



[문철 위원장]

지난 3월 29일 11시 계묘년 춘향대제를 위한 제1차 제례·계보위원회가 개최되었다. 회의에 앞서 대중중 회장(澈秀)은 제23대 회장 재임중 마지막 회의인 것 같다고 하고 이번 춘향대제는 코로나 이후로

3년만에 모든 종원이 참여하는 향사일 것으로 생각하는데 많은 종원이 참제하도록 홍보해 달라는 당부하고 제24대 제례·계보분과위원회는 제례분정에 지장이 없도록 증원하려는 복안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이어 문철 위원장은 향사에 참석하는 종원이 많고 적음을 떠나 위원으로서 소임을 다하자고 하고 문화국장 제안 설명을 듣고 영당의식, 헌관, 집사분정 건을 상정하여 초헌관 형섭(제정공파 회장), 아헌관 성화(판사공파 회장), 종헌관 태승(진사공파 부회장), 집례(당상) 문철, 집례(당하) 동원, 대축 의호를 분정하는 건을 의결하였다.

제2차 회의는 4월 19일 11시 대중중 회의실에서 제24대 임원 구성에 따른 제례·계보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위원회에서는 향사규모에 맞게 2명을 증원한 12명으로 구성하기로 하고 11명이 참석하였다.

성원보고 후 대중중 회장(澈秀)은 새로 구성된 문철 위원장(정언공파), 대수(정언공파), 우현(문화공파), 언기(현령공파), 정현(문화공파), 의호(판사공파), 장순(사간공파), 국철(사간공파), 동원(문화공파), 성호(사간공파), 화섭(사간공파) 위원 한분, 한분에게 위촉장을 전수하고 불참한 용철(사간공파) 부위원장에게는 별도로 전수하기로 했다.

회장은 인사말에서 전임 위원회에서 지난 3년 동안은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여건에서 춘, 추 향사를 윈윈히 봉행하여 시조님 선양에 기여하였고 대중중 규약 개정 따라 새로 위촉된 임원에 대한 세보 검정을 위해 회의를 개최하여 종무에 기여한 바 있었다고 회고하고, 오늘 위촉된 위원 여러분은 회장과 3년 동안 임기를 같이 함으로 재임 중 향사를 잘 봉행하도록 열과

성을 다하고 위원으로서 소임을 다해 달라고 하였다.
이어 문철 위원장이 주관하여 위원들 각자 소개에 이어 앞으로 추진해야 할 업무에 대한 상호간 토론 후 간담회를 마쳤다.

제1·2차 장학·상별위원회 개최



[형섭 위원장]

지난 2월 9일 11시, 대중중 회의실에서 제1차 장학·상별위원회를 개최하고 표창대상자 15명, 장학생 대상자 22명을 접수하고 동석(東錫) 위원장이 주관하여 심의하였다.

표창대상자는 공적과 중증, 화수

회 기여도, 형평성을 고려하여 13명을 선발하고, 장학생은 I, II는 성적 순으로 각 1명을 탈락시키고, I 그룹(평점 3.4이상) 6명, II 그룹(평점 3.6이상) 7명, III 그룹(평점 4.0이상) 3명, 특별추천 4명을 선발 확정하였다.

이에 대중중은 결과를 표창자, 장학생에게 통보하고 표창자는 대중중 총회(3월 21일)에서 시상하고, 장학생은 1학기 장학금 100만원을 각 장학생에게 이체 송금하였다.

제24대 임원 구성에 따른 제2차 장학·상별위원회 간담회가 2023년 5월 22일 11시 대중중 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위원장에 형섭(제정공파) 부위원장 광섭(문희공파), 위원으로 웅균(제정공파), 현진(정언공파), 재철(밀직공파), 향철(감찰공파), 명철(참판공파), 동완(제정공파), 동건(진사공파), 동진(밀직공파) 종(宗)을 각 각 위촉하고 위촉장을 전수하였다.

이어 대중중 회장(澈秀)은 분과위원회 구성은 항고 연고순으로 장령공파와 판윤공파를 제외한 각 파종중 종원의 분포를 고려하여 위촉하였음을 알리고 위원 여러분들은 대중중 회장 자문기구로서 역할을 당부하고, 대중중 당면 현안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하였다.

이어 형섭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이 자리는 대중중의 미래를 여는 일과 과거를 평가하는 자리로 장학은

앞으로 커가는 젊은 청년을 돕는 일이고 표창은 행적을 칭송하는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활력소가 된다고 피력하며 도와야 할 사람을 돕지 않고 칭찬해야 할 사람을 칭찬하지 않는 것은 나아가 비난이 될 것이므로 위원님들의 명확한 사리 판단이 중요함을 말하고 해안을 가지고 재임 3년간 대중중 변화에 큰 역할을 당부하였다.

이어 위원들은 돌아가면서 자기 소개를 한 다음, 상호간 의견을 피력하고 질의를 통해 대중중과 소통의 계기가 되었다.

편집·종규위원회 개최



[동석 위원장]

2023년 5월 31일(수) 오전 11시 편집·종규 위원회가 동석(전서공파) 위원장, 홍현(문희공파) 부위원장, 칠균(정언공파), 사현(문희공파), 현우(이상공파), 희철(제정공파), 정식(한성윤공파) 익순(제정공파), 호철

(참판공파), 상무(문희공파) 위원을 위촉하고 7명이 참석하였다. 회의에 앞서 위원을 대표하여 동석 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대중중 회장(澈秀)은 간단하게 본인 소개 후, 이번 편집·종규 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전년도 개정된 종규의 미흡한 부분과 개정 보완했으면 하는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해 달라 하고 이번에 위촉한 위원들은 나름 이 분야에 밝은 분들이라 생각해서 위촉하였고, 명단은 항고 연령 순으로 작성했으니 이해해 달라고 하였다.

대중중은 장군단 소송 건을 6월 7일 상임위에 보고할 준비 중에 있으며, 개정할 종규는 개정된 책자를 보시고 6월 말까지 연구하여 위원회에서 토론하여 결정하도록 하자고 하였다.

이어 동석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편집·종규 분야는 처음이라 사회통신망의 S.N.S, 단톡방, 이메일 등을 공유하여 위원들간 사전조율을 거쳐 대면회의에서 의견을 정리했으면 하고 또한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대중중 각 국장과 각 분과위원회의 조언을 받아 의견을 모으고,

2022년도 개정된 규약의 보완해야 할 조항과 특히 대
중중회장 선거관리규정을 꼼꼼하게 챙겨보았으면 한다
하고 각 위원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종사에 기여하자고
하였다.

재산관리위원회 개최



[동선 위원장]

5월 23일 11시에 대중중 회의실
에서 제24대 임원 구성에 따른 재산
관리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동 위원회는 동선(문화공파)위원장,
현화(전서공파) 부위원장, 언권(정인
공파), 창귀(제정공파), 용철(한성운

공파), 상준(제정공파), 동원(군수공파), 동천(제정공파) 경섭(온수 36), 형섭(사간36) 宗을 위원으로 위촉
하였고, 이날은 동선 위원장이 코로나로 인해 불참하여
위원회 위원을 대표하여 현화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전달하였다, 임기가 4월 1일 부로 시작되는데 여러 일
정 때문에 위촉이 늦었고 명단작성은 항고 연고 순으로
작성되었으니 오해가 없기 바란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전에 각 분과위원회 구성은 상임이사 위
주로 편성함에 따라 위원회에서 거론된 안건이 상임
이사회에서 같은 안건을 재론하는 불합리한 면이 있
었다고 하고 이번 분과위원회 구성은 형평성을 고려
하여 각 파종중 중원에 비례해서 위촉하였고 임기는
회장 임기와 같이 함으로 재임기간 위원 여러분은 회
장의 자문기구로서 소임을 다 해주실 것을 당부하였
다. 이어 대중중 소유 부동산 현황을 유인물로 설명하
고 위원 여러분의 관심을 촉구하였다. 이어 이와 관련
된 질의와 응답 후, 위원들이 현황 파악을 위해 현장
답사를 건의하였고, 위원들과 소통의 계기가 되었다.

2023년도 전반기 전자대동보 수단 접수 현황

상반기 대중중에서 접수한 전자대동보 수단 신청 각

파별(派別) 접수현황 및 수단비 배분은 다음과 같다.

1. 총 접수 인원 : 154명
2. 수단 접수비 : 5,844,000원
3. 배분 : 파종중 70% : 4,090,800원
대중중 30% : 1,753,200원

순위	파 별	접수일	수단자	인 원	접수비	배 분	
						파종중(70%)	대중중(30%)
01	정언공파	02/24	재철	3	80,000	56,000	24,000
02	사간공파	02/26	동훈	5	130,000	91,000	39,000
03		05/17	재현	8	255,000	178,500	76,500
04		05/17	경규 (현구)	26	1,140,000	798,000	342,000
05		05/08	광철	1	20,000	14,000	6,000
06		05/18	동운	6	98,000	68,600	29,400
소 계				46	1,643,000	1,150,100	492,900
07	제정공파	03/03	동희	6	151,000	105,700	45,300
08		03/03	억식	1	30,000	21,000	9,000
09		05/16	창열	8	340,000	238,000	102,000
10		05/17	기철	14	450,000	315,000	135,000
11		06/07	상령	3	164,000	114,800	49,200
12		06/22	진기	38	1,620,000	1,134,000	486,000
소 계				70	2,755,000	1,928,500	826,500
13	문화공파	06/05	현우	3	135,000	94,500	40,500
14		06/06	민호	3	55,000	38,500	16,500
15		06/08	동구	18	682,000	477,400	204,600
16		06/05	성현	3	130,000	91,000	39,000
17		06/05	동화	2	80,000	56,000	24,000
소 계				29	1,082,000	757,400	324,600
18	온수공파	06/13	건순	6	284,000	198,800	85,200
총 계				154	5,844,000	4,090,800	1,753,200

※ 수단 분배금은 각 파종중 계좌로 입금

파종중 · 화수회 소식

제정공파 중중 상임이사회 / 정기총회 개최



[상임이사회]

2023년 2월 28일 11시 대구시 중구 태평로 256-8 소재 중중 사무실에서 정기 상임이사회를 매년 3월 중으로 개최하였으나 2023년은 파종중 회장이 대중중 회장 선거관리위원장 직을 맡아 임원회의의결을 거쳐 개최하였다.

상임이사 32명이 참석하였으며 순서는 개회, 상읍례, 선조님에 대한 묵념, 회장 인사, 2022년도 주요사업 경과보고, 2022년도 결산보고, 2023년도 사업계획 등을 보고한 후 임원 개선을 하였으며 임시의장은 웅균 부회장이 맡아 회의를 진행하였다. 회장에 형섭 회장이 유임되고 광수 감사가 부회장으로 영국 상임이사는 감사로 선임되고 영대 감사는 유임되었다.



[정기총회]

4월 5일(청명) 18시에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목왕리 소재 신추당(愼追堂)에서 40여명이 참석하여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형섭 회장]

총회는 1955년부터 매년 한식날 파조 향사 전일 입제하여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회장은 개회를 선언하고 상호 간 상읍례(上揖禮)를 한 후, 선조님에 대한 묵념을 올리고 인사말이 있었다.

이어 2022년도 주요사업 경과보고, 2022년도 결산보고, 2023년도 사업계획, 임원선출 보고를 한 후, 집사 분정을 끝으로 회의를 마쳤다. 회장은 마무리 인사말에서 중중의 설립 목적이 종원이 단결하여 선조를 경모하고 족의를 돈독히하여 자손의 번영과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향사 참여하는 종원이 해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어 종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의식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종원 모두가 새로운 마음으로 파조 및 선조님들을 잘 모시자고 다짐하면서 정기총회를 마쳤다.

온수감공(諱 淇) 향사 봉행

2023년 5월9일(음3월20일) 온수감공과 중중 회장 상우(相雨 35세)는 충남 서천군 비인면 울리에 있는



[상우 회장]

울리사(栗里祠:충남 지방문화재 제 303호)에서 본손 30여명이 참제한 가운데 엄숙히 향사를 봉행하였다.

온수감공 파조 諱 기(淇)(1365, 공민14 ~ 1393, 태조1)는 14세 혼(璿)의 3男으로 字는 의오(漪吾)이며

고려조(高麗朝) 공양왕(恭讓王) 때, 벼슬은 온수감(溫水監)을 지내셨다.

1393년 고려 공양왕 4년 이성계(李成桂)가 왕이 되니, 부친 14세 휘(諱) 혼(璿)이 새 왕조에 불복할 것을 결심하고, 3형제를 불러 말씀하시기를 “고려 태조 왕건을 도와 고려를 창건한 개국공신이신 시조 신승겸(申崇謙)의 후손으로서 고려에 대한 결의를 지켜야 한다”며 두문동에 들어갈 뜻을 밝혔다. 이에 사간공(思簡公) 휘(諱) 호(浩)와 대제학공(大提學公) 휘(諱) 연(演), 온수감공(溫水監公)이 말씀하시기를 “아버님은 고려조의 창건 공신인 신승겸장군을 숭모하는 충정으로 그러시지만 우리 삼형제가 모두 세상과 절연하면 가문은 어찌하십니까?”

그러하니 형제 중 장자인 호(浩)형님은 조선조에 출사하여 가문을 지키고, 선영의 봉제사와 가문을 지키는 마땅하겠고, 작은 형님 연(演)과 소자가 아버님을 모시겠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사간공(思簡公) 휘(諱) 호(浩)만 남기고 3부자가 두문동에 들어가 불길을 피하지 않고 순절(殉節)의 길을 택하시니 당시 연세가 28세였다.

이날 제관은 초헌관 동흔(東昕), 아헌관 용환(龍煥), 중헌관 광섭(光燮), 독축 재식(載湜), 좌집사 동확(東確), 우집사 동일(東日)宗이 각 각 소임을 맡아 상섭(相燮) 상임이사의 집례로 창홀에 따라 정당 7位の 신위전에 분향, 헌작과 독축 재배를 행한 후 망료례, 음복례로 제향을 마쳤다.

상우(相雨) 회장은 인사말에서 코로나19로 힘든 가운데도 각지에서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 많은 종원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우애를 돈독히 하고 중중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하고 성원해 주시는 대중중에도 감사드리며 종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마다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한다고 하였다.

전서공 향사 봉행, 정기총회 개최



[동석 회장]

4월 30일 12시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상천리 무주동(불기산) 전서공(典書公 諱 灝) 제단(祭壇)에서 60여명의 많은 종원이 참례하여 향사를 봉행했다.

이날 분정은 초헌관 대중중 철수(澈秀) 회장, 아헌관 남원 경섭(京燮), 종헌관 재호(載昊), 대축 춘천 관철(寬澈), 집사 동휘(東輝), 주호(周鎬)宗이 분정하고 동석(東錫) 회장의 집례로 홀기에 따라 경건하게 향사를 봉행하였다.

이어 묘전에서 동석 회장이 2023년도 정기총회 개최를 선언하고 현화(鉉和) 총무의 사회로 경과 및 결산보고, 동휘 감사가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한 후, 당면현안을 토의하였다.

동석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3년간 코로나로 뵈지 못하다 이렇게 많은 종원님을 모시고 향사를 봉행하게 되어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고 대중중 철수 회장과 인사말씀을 부탁드렸다.

철수 회장은 우리 대중중도 코로나로 지난 3년간 소수 종원들로 향사를 봉행하다 지난 4월 22일 700여명이 성원하여 향사를 봉행하였다 하고 오늘 전서공 향사에서 여러분을 뵈게 되어 반갑고 특히 남원에서 버스를 대절하여 많은 분이 참석하여 고무되었다고 말씀하시고 앞으로도 화목하고 승조돈독하는 전서공과 종중이 되길 기원한다고 하였다.

이어 현화 총무가 공지사항을 전달하고 폐회를 하였다.

제22회 신사임당 추모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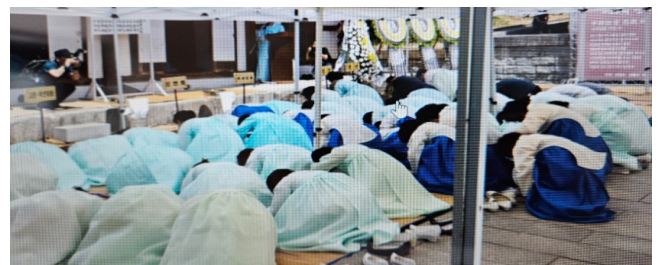
싱그러움이 넘치는 계절 5월17일 강릉 오죽헌 몽룡실에서 신사임당의 유덕을 기리는 제22회 추모제가



200여명이 참제한 가운데 봉행되었다.

강원도와 강릉시가 주최하고 한국여성 강릉 예림회가 주관한 추모위원회 류연교 위원장을 비롯하여 강릉 예림회 여성들이 전통예절을 승계하겠다는 큰 뜻을 품고 창단 한, 강릉 예림회 여성들이 매년 오죽헌 몽룡실에서 사임당 열 선양사업의 하나로 제례를 준비 하면서 해풍을 맞고 핀 진달래를 따서 담근 두견주를 헌주로 쓰고 제물은 일주일 전부터 약과, 다식, 전, 편, 채 등 전 회원이 정성을 다해 조리한 제물을 제기에 고임 하였다.

김도영 집례로 시작한 제례는 초헌관 원현순(강원도지사 부인), 아헌관 김은희(강릉시장 부인) 종헌관 김진희(강릉시 국회의원 부인), 대축 김영자, 찬인 신종숙, 진설 이재숙, 봉향 김미경, 봉로 김연희, 봉작 이상희, 전작 김경옥, 알자 박소원이 각 소임을 맡아, 집례의 홀기에 따라 강신례를 시작으로 사신례까지 엄숙하게 봉행하면서 사임당의 열과 정신을 추모하였다. 평산신씨대중중 회장(申澈秀)은 매년 추모 화환을 헌화하고 있다.



제431주기 팔천고훈위령제

충주문화원은 6월16일(음 4월28일) 10시 제431주기 팔천고훈 위령제를 탄금대팔천고훈위령탑에서 충주문화원(원장 유진태)이 주최하고 충주시장(조길형) 국회의원 이종배, 충주경찰서장(목성수) 충주재향군인회장(유영석) 도의회 부의장(이종갑) 외 각계와 후손인 평산신씨 문희공파 김해 주촌종회 종원 30여명(신우현 회장), 충주화수회종원 20여명(회장 신면순)과 김여물 부장의 순천김씨 후손 15여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행사는 내빈소개와 인사말, 추모의식, 개식사, 국민의례, 헌화 분향과 추념사, 추모 헌시 낭송 후, 후손들의 헌화와 분향, 재배, 기념촬영으로 폐식하였다.



팔천고혼위령제는 충주 탄금대에 1592년 음력 4월 28일 도순변사 신립(申瑰) 장군과 김여물 부장 등 휘하 장졸 8천명과 함께 충주 탄금대 일대에서 배수진을 치고 왜적(倭敵)을 맞아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한 고혼의 넋을 달래는 위령탑을 건립하고 매년 음력 4월 28일 위령제를 지내고 있다. 평산신씨대종중(회장 신철수)은 매년 추모화환을 헌화한다.

조선 선조(1952년) 4월 왜적은 21만의 병력으로 침략하여 15일 동래성을 함락하고 4월25일 상주를 점령한 왜적은 26일 문경을 점령한 후 조령을 넘었다.

나라가 위급하자 충장공 신립장군은 80여명의 군관만을 데리고 전장으로 향하였으며 전장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초군(招軍)한 8,000여명의 군졸과 26일 이곳 충주에 이르러 북상하는 왜군을 막아내기 위해 진을치고 주둔하였다.

28일에 이르니 15,000여명의 고니시(소서행장)군이 3개 대대로 나누어 공격해 왔고 신립장군과 김여물 부장을 비롯한 8,000여 명의 군사들은 목숨을 던지는 전투를 벌였다. 배수진(背水陣)이라는 세계 전사상 찾아보기 어려운 전 부대원이 순절하는 옥쇄작전을 감행하였다.

조총과 같은 앞선 무기로 조련된 군사력 앞에 위국과 충절의 단심만으로 대항하여 조선군의 용맹을 펼쳐 보였다.

420여년 전 용맹했던 신립장군과 김여물 부장을 비롯한 팔천고혼의 애국충절과 천추의 한(恨)을 추모하고 순국하신 의군(義軍)들의 뜻을 받들어 그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팔천고혼 위령제를 봉행한다.

해공 선생 67주기 추모식 묘전에서 엄수



국권회복을 위해 헌신한 해공 신익희 선생 67주기 추모식이 5월 5일 오전 11시에 수유리 묘전에서 150여명의 추모객이 참석한 가운데 현승일 해공 신익희 선생 기념사업회 전 회장의 사회로 거행되었다.

국기에 대한 경례와 애국가 제창에 이어 해공 신익희 선생과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후, 해공 선생의 약력보고가 있었다.

이어 현승일 기념사업회 전 회장의 추모사와 기념사가 이어지고 정계를 대표하는 대한민국 헌정회 정대철 회장과 광복동지회 유가족을 대표하는 우당 이회영 교육문화재단 이종찬 이사장은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1956년 5월 3일 한강백사장에서 열린 민주당 신익희 후보 한강 유세 당시, 중학생으로 백만인과 속에서 “못 살겠다 갈아보자”는 캠페인으로 시민들의 환호와 우리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고 핵심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강조하는 연설이었다는 것이다.

이틀 뒤에 호남지역 유세차 기차를 타고 이리역을 지난 열차에서 안타깝게 급서하여 하늘도 땅도 울었다고 하였다.

행정부, 지역, 학계를 대표하는 추모사가 이어졌고 끝으로 기념사업회 회장으로 취임한 김충환 회장이 취임 인사 후, 신학영 해공선생의 장손 및 유족일동을 비롯한 각계 대표들과 추모객의 헌화와 분향에 이어 대종중은 직원과 종원 10명이 참석하여 분향하고, 대형 조화를 헌화했다.

공산전투 나팔고개 유래(由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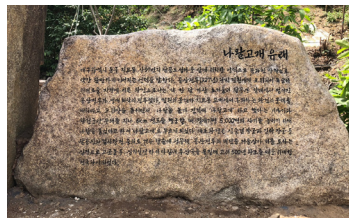


표충재종중 회장(東鮮)은 취임 후, 추진업무중 하나로 사라진 “나팔고개” 복원을 선정하고 관할 대구 동구청과 협의하여 도시개발로 사라진 옛 문화유적을 다시 복원하였다.

추진과정은 2022년 08월 대구시 동구청장 면담 시 공산동 동장을 대동한 자리에서 표충사지 3집 312쪽(나팔고개로 표기)에 기록된 나팔고개에 대한 유래를 설명하고 表忠祠誌(三輯) 1권을 기증하며 복원에 대한 의지로 설득하여 대구광역시 동구청의 승인을 받아 2023년 4월20일 완공하였다.

◆ 나팔고개 유래 비문은 다음과 같다.◆

대구광역시 동구 지묘동 산 97번지 팔공보성타운 앞에 위치한 언덕으로 동화천 방향으로 약간 완만하게 이어지는 언덕을 말한다. 공산전투(927년) 당시 견훤에게 포위되어 목숨이 위태로울 지경에 이른 왕건으로서는 약 한 달 가량 초겨울의 팔공산 일대에서 벌어진 공산전투가 생애최악의 전투였다. 견훤의 군대가 지묘동 고개에서 후퇴하자 왕건의 군대를 에워싸고 포위망을 좁히면서 나팔을 불며 진격해 “나팔고개”라고 했다는 이야기와 왕건군이 무태를 지나 6km 정도를 행군할 때 정예기병 5,000명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나팔을 불렀다고 하여 “나팔고개”로 부르게 되었다. 태조 왕건은 신숭겸 장군과 김락 장군 등 팔공신의 결사항전 충의로 겨우 탈출에 성공해 공산전투의 패전을 거울삼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고군분투, 심기일전하여 마침내 후 삼국을 통일해 고려 500년 왕조를 세운 위대한 건국 왕이 되었다.



서울시화수회 정기총회 개최



[정용 회장]

지난 5월 30일 오전11시 종로3가 한일옥(301호)에서 2023년도 제52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대중중 회장(철수)을 대신하여 금철 대중중 문화국장, 홍균 고문과 범진 부회장 등 회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용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하였다.

이날 현덕(鉉德) 회장의 개회 선언에 이어 성원보고와 국민의례를 마치고 내빈 소개와 새로 선출된 정용(正龍) 신임 회장을 소개한 뒤 신창용, 신현식 종원에게 유공 표창장 수여가 있었다.

현덕 회장은 개회사에서 회장직으로 두 번의 임기(6년)를 맞게 되었는데 그 동안 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해 한다고 하였지만 미흡한 점이 많았으리라 생각하고 재임 중 사무실 비품교체, 종보 보급, 유적지 탐방, 회의개최, 각종 회의와 행사 등 바쁜 나날을 보냈지만 여전히 할 일이 산적해 있으며, 나름 시조님의 혁혁하신 충의 정신을 후세에 전해야 할 사명감을 가지고 재임 중 임원진 및 종원 여러분들의 사랑과 성원으로 큰 문제없이 임기를 마치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한다. 인사말로 가름했으며 정용 신임회장은 인사말에서 서울특별시 화수회의 중대한 역할과 책임에 막중한 무게를 느끼고 대중중 종규 제2조의 목적 취지에 맞게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하고 본 화수회가 훌륭하신 전임회장님들의 업적을 계승하고 더욱 발전적인 모습으로 재탄생해야 한다는 다짐을 하였다.

이어 현덕 전회장의 건배 제의와 함께 오찬을 한 후 기념품을 증정하고 폐회하였다.

부산·경남화수회 정기총회개최



[창열 회장]

2023년 봄비 내리고 향기로운 꽃 향기가 퍼지는 4월 29일 토요일 11시 제53차 부산·경남화수회 정기총회를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부산일보사 10층 강당에서 개최했다. 부산과 경남지역인 거창, 김해, 밀

양, 사천, 진주, 진해, 합천화수회 종원들과 동선 표충재 종중 회장, 경백사 유균 회장 외 내·외 귀빈 130여명이 참석하였다. 대중중 철수 회장은 아쉽게 비행기 결항(우천)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행사장 입구와 벽면에 부착된 대형 플랜카드 2개 (“고려태사 장절공의 DNA” “고려태사 장절공 신승

겸 장군 후손”)와 신사임당, 신돌석 장군, 해공 신익희 선생의 사진을 부산 불꽃축제 사진에 캡처한 사진을 배경으로 종원들이 사진촬영을 하는 등 호감을 가지게 하였다.

1부 행사로 사물놀이패의 길 열림과 ‘平山申氏 평화번영’ 한 마당이 성대하게 열려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행사장 입구에는 상규 감사, 동일 재정국장, 행수 사무차장 외 영석, 정훈, 임주 종원들의 안내로 방명록에 世, 派, 지역 화수회명 등, 각자 명찰을 즉석 컬러(color) 프린팅으로 제작하여 착용하도록하여 종원 간에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세심한 배려를 하였다.

상령 사무총장의 개회 선언과 국민의례, 상수 회장 식사와 경과보고, 상규 감사의 감사보고에 이어 사무총장은 회장(相修) 재임 중 2017년부터 7년간, 춘천 시조 춘향대제에 지역 종원(버스 2대)을 인솔하여 참배하는 등 영남지역 종원들과 활발한 교류로 친목에 노력한 영상을 상영하여 업적을 찬양하였다.

이어 임원선출 건을 상정하여 제24대 회장으로 창열(昌烈) 宗을 먼저 선출하고 감사로 상규(相圭), 상령(相領)을 선출하였다.

사무총장에 상운(相紆), 차장 행수(幸秀), 재정국장 동일(東一) 宗을 선임하고 부회장과 문화국장은 차후에 선임하기로 하였다.

이어 화수회 기(旗)가 이양되고 창열 회장은 취임사에서 오늘이 있기까지 수고와 봉사를 하신 역대회장님과 임원, 종원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많은 가르침과 성원을 당부하였다. 이어 동선 표충재 중증회장의 축사와 시조 장절공의 절의(節義)를 소개하였다.

창열 회장은 제정공파(34세) 59년생이며 현재 (주)창신의 대표이사로 자동차 물류 이송 컨베이어 주요 핵심 부품인 롤러와 스마트 팩토리 설계기술을 확보한 유망기업이다.

이어 창열 회장은 상수 직전회장, 현웅 고문, 직전 상령 사무총장과 동수 감사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신입 감사에게는 위촉장을, 신입 상운 사무총장, 동일 재정국장, 행수 사무차장에게 선임장을 전수하였다. 그 외 윤균 재단법인 경백문화재단 초대 이사장은 고려대학교 체육교육학과(2학년) 주영학생 어머니(김영선 여사)께 장학증서와 장학금 일백만원을 지급하였다.

2부 행사는 민식 창원화수회 종원의 사회로 레크레

이션을 진행하며 종원들의 우정을 돈독히 하고, 특히 창원화수회 종원들이 많이 참석하여 신입회장 취임 축하연



을 주도하고 내년을 기약하면서 기념품을 받아 들고 폐회하였다.

제68회 광주·전남 화수회 정기총회



[사현 회장]

2023년 5월 26일(금) 오전 10시 30분, 광주광역시 서구 김대중컨벤션 댈리하우스 2층에서 종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대중중 철수 회장, 창원화수회 회장 철 회장이 보내주신 축하 화환이 식장을 밝게 장식한 가운데 1부 기념식과 2부 오찬회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식장에는 “개국 1등 공신 평산신씨 시조 고려태사 장절공 신승점 장군님을 현창합시다”라는 문구의 대형 현수막으로도 회의장 내 분위기가 평산 신씨 후손이란 긍지를 느낄 수 있었다. 회장(相南)의 개회 선언 후, 사현 사무국장 사회로 국민의례, 시조님과 조상님에 대한 망배를 올리고, 종원 상호 간 인사로 시작되었다.

회장은 인사말에서 새로운 각오로 발전적 화수회를 운영하고자 다짐하였지만, 뜻하지 않게 전 세계를 휩쓸고 지나간 코로나19로 회의 한번 원활하게 개최하지 못한 현실이 매우 안타까웠다고 하고, 종친 상호 간에 서로 아끼고 협력하여 모두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오늘 임원 임기가 만료됨으로 새로운 집행부를 선출하여 화수회가 진일보하도록 기원한다 하였다. 이어 형철 명예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서로 이해하고 화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고 락현 명예회장의 축사가 있었다.

식순에 따라 회장의 종사보고와 동식감사의 감사보고가 있는 후, 회관 구입을 위한 토지가 수용되어 있어 보상금 은행 예치문제에 대한 질의가 있었으며, 재무보고 건을 상정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 임원 개선건을 상정했다.

임시의장에 형식 전 회장을 선임하고 16인의 전형 위원회가 구성되어 경선한 결과, 신입 회장에 현 사무

국장 사현(33세)宗, 감사에 동우(34세), 영결(34세)宗을 선출하여 총회 승인을 받았다.

새로 선출된 사현(士鉉) 회장은 수락연설에서 “기쁘기보다 잘 할 수 있을지 두려움이 앞선다” 고 하며 앞으로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하였다.

사현 회장 주제로 평산신씨 시도화수회 규약 준칙(2023.3.21.개정)을 근거하여 중규 개정 건을 상정하고 임원 선출을 위한 “전형위원은 명예회장, 고문, 시군구화수회장, 유적지 회장으로 구성한다” 라고 규약 제6조 2항에 삽입하였다.

질서정연한 가운데 회의를 마치고 오찬을 하며 정담을 나눈 후 산회하였다.

■ 헌성금 내역 ■

이름	주 소	표성금	이름	주 소	표성금
용산단		500,000	창문	목포 흑산흥어	100,000
덕양서원		500,000	동식	광주 남구	100,000
장군단		500,000	현덕	광주 동구	100,000
대종중		300,000	사현	광주 광산	100,000
형식	한성운공파회장	300,000	용기	광주 남구	50,000
정현	해남 백은공 종중	200,000	현구	나주 남평	50,000
홍현	광주 남구	200,000	기종	고흥	50,000
근성	여수시 화수회	100,000	병수	영암	50,000
규현	해남군 화수회	100,000	용철	광주 북구	50,000
경균	진도 종친회	100,000	문현	광주 광산	50,000
기안	광산군 화수회	100,000	동원	광주 서구	50,000
창문	목포 화수회	100,000	영결	광주 남구	50,000
용환	광주 서구	100,000	미현	광주 서구	50,000
동인	담양 가사문학면	100,000	덕균	해남 삼산	50,000
재관	광주 남구	100,000	성현	해남 삼산	50,000
현동	담양 대전	100,000	만섭	광주	50,000
배식	고흥	100,000	경균	진도 의신	50,000
복균	광주	100,000	후근	진도 의신	50,000
동우	광주 동구	100,000	재철	진도 의신	50,000
합 계					4,850,000
화 환					
대종중 철수 회장	1 점	창원화수회 희철 회장	1 점		

제주도 화수회 정기총회

2023년 2월 19일(일요일) 오전 10시 30분 제주도화수회 회관(외도1동)에서 52명(위임21명)이 참석하여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총무국장(희섭 36세)이 규약 제23조에 의거 성원되었음을 보고하자 상섭 회장은 개회를 선언하고 선조님에 대한 묵념 후 개회사 겸 신년사를 하였다.



[상섭 회장]

이어 총무국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4월 첫째주 일요일인 4월 2일 제주입도조 시향제를 비롯하여 그간의 경과와 전차회의록을 보고 후, 코로나로 인해 3년동안 실시하지 못했던 청년회 주관의 체육대회

도 준비중에 있음을 보고하였다.

창훈 감사의 감사보고가 있고, 의안 제1호 2022년도 운영자금, 발전기금, 건축물관리비 결산 건을 상정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 제2호 중무계획, 운영자금, 발전기금, 건축물관리비 예산 승인의 건을 상정하여 문구 등, 일부 수정하여 예산안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제3호 의안인 입도조 묘비문 수정 및 비석 교체의 건은 제안설명 후 비석교체, 사업비는 1,500만원, 추진위원은 8인(화수회장에게 위임)으로, 예산은 기금에서 전용하여 사용하기로 의결하였다.

제4호 기타사항으로 전자족보 등재절차는 개인이 파종증을 통해 대종증으로 신청하고 전자대동보에 등재되면 평산신씨대종중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본인의 족보를 열람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전자대동보에 등재되지 않으면 대종중 규약 제6조 임원과 대의원 선출 제4조 2항, 장학생 신청 등 신청 자격이 없음을 설명한 후, 폐회를 선언하였다.

“창원시 화수회 정기총회 및 사무국 개소식”



평산신씨 창원시화수회의 2023년도 제52차 정기총회가 3월 25일 11시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등대장 어식당에서 신희철 회장을 비롯한, 종원, 각 지역화수회 회장 및 임원진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날 총회에서 신희철 회장이 연임되었고, 이어 2021년~2022년 사업으로 재단법인 경백문화재단에 300만원과 용산단지 2집 발간에 150만원을 기부한 바 있으며, 장학사업의 일환으로 경상고 신재형 학생(2학년)과 인제대 신준우 학생(1학년)에게 각 50만원씩 장학금을 전달하고 경백문화재단 신윤균 초대이사장께서 신용대 학생(연세대 수학과 1학년)에게 장학증서와 함께 1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하였음을 보고하였다.

이날 내빈은 대구 표충재종중 신동선 회장, 신창귀 부회장, 곡성 용산단종중 신현대 회장, 경백문화재단 신윤균 이사장, 부산경남화수회 신창열 차기회장과, 본회 역대회장이 참석하고 각 청장년종원들과 여성 종원을 포함한 많은 종원이 참여하였다.

또한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소재한 경남오피스텔에 위치한 사무국에 입주하는 사무국 개소식을 하였다.

영주시화수회 총회 겸 관광



경북 영주시화수회 회장 용식은 지난 2023년 4월 18일 그간 코로나19로 인하여 개최하지 못한 총회 겸 선행현 관광을 다녀왔다. 36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 산청의 성철스님 생가 및 동의보감촌을 관광하였다.

이어 동의보감촌 주차장 광장에서 가진 총회에서 식순에 의한 국민의례, 장절공 시조님에 대한 묵념 후, 회장의 인사와 영환 총무의 경과보고, 동훈 감사의 감사보고에 이어 결산 및 예산 심의를 의결하고 임원선출 건을 상정하여 전원 유임으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기타 토의사항으로 내년 음력 3월 3일 춘천 장절공 묘소에서 있을 향사에 임원이 참석하도록 가결하고 용식 회장의 폐회 선언으로 총회를 마쳤다.

영덕군화수회 정기총회 개최



영덕군화수회(회장 성화) 정기총회가 4월 13일 11시 영덕군 영덕읍 소재 임경대 가든 대연회실에서 종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거행되었다.

이날 명종 사무국장의 사회로 개회선언, 국민의례, 회장 인사, 축사, 격려사, 경과 및 감사보고, 전년도 결산 승인 및 2023년도 예산(안) 승인, 임원선출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성화(城和) 회장은 “코로나로 인하여 3년 동안 모임을 하지 못했다는 오늘 이 자리는 그 동안 소원했던 일가들이 모여 화수돈목하는 자리를 만들었으니 일가, 따님, 며느리 모두 모여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인사한 뒤, 식순에 따라 임기가 만료되어 임원 선출 건을 상정하여 대종중 제례위원 의호(義浩)위원을 신임 영덕군화수회 회장으로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의호 회장은 “우리는 위대한신 시조 장절공 후예로서 장절공은 나라가 어려울 때 분연히 대처하고 불의에 저항하였으며 임진왜란과 일제침략기에도 이 지역에서 수 많은 의병과 독립투사를 배출하였다. 특히 장산 돌석(鎭石)장군은 우리 근대사에 추앙할 인물이다” 말하고 仁과 義에 사셨던 선조들의 위대한 정신을 이어받은 후손으로서 한점 부끄러움 없이 조선을 경모하고 종원 화합에 동참해 주기를 바라며 미력하나마 우리 영덕군화수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였다.

이어 부회장에 동영, 영순, 길선 종원을 선임하고 감사에 현배, 영도 宗을 선출했다.

임실군 신덕종중 표충재 탐방

2023년 3월 29일 전북 임실군 신덕종중(24世 諱 舜養의 後孫) 회장 형순(밀직공 34세손)과 종원 42명은 유적지인 대구 표충재를 탐방하였다.

회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농사 준비에 바쁜 시기임에도 참석해주신 종원 여러분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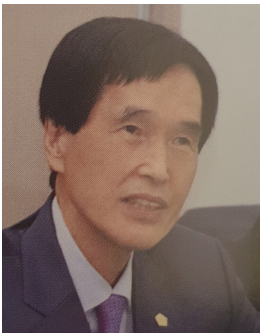


임실군 화수회 회장 동환은 신덕중중은 농촌지역으로 우리 일가의 집성촌에는 연로하신 종원이 다수인 바, 생전에 시조 유적지 순방(巡訪)을 계획하고 5년전 춘천 묘소 참례에 이어 오늘 표충재 탐방을 위하여 참석 해주신 종원 여러분과 행사 준비에 수고하신 순섭(36세) 총무에게 감사드린다고 격려를 하자 참석 종원들은 힘찬 박수로 노고에 화답하였다.

표충재 현지의 문화해설사 안내로 순절단, 표충재, 상절당 등 경내를 탐방하면서 조상의 얼을 깨우치고 숭조돈독의 보람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종원들은 회고하고, 앞으로도 종원의 단합과 숭조 및 후손들 교육의 일환으로 각 처의 유적지 탐방을 집행부에 건의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귀가하였다.

종원동정

재능기부로 사회환원에 앞장서는 법률전문가 신정순 법무사(34세 제정공파)



[신정순 법무사]

30년 가까이 무료법률상담을 실천하며 법률사각지대에 있는 서민들에게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준 신법무사는 한 평생 주변을 먼저 돌아보고 소외된 이웃에게 온정을 베풀었을 뿐 아니라 풍부한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지역민들의 법률지원자로 2022년 뉴스리포트가

발행하는 오피니언 리더 12월호 표지 인물로 선정되었다.

신법무사는 일찍이 경제력이 없어 법적 구제를 받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법률무료상담을 해 오던 바, 전국으로 입소문이 나며 지인소개, 인터넷 정보를 통해 많은 이들이 찾아 오고 있어 지속적인 도움을 주고 있고, 최근에는 미국, 일본 등 외국에서도 등기 법률자문 등이 쇄도하여 합리적인 비용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등 능력을 인정받으며 사건 의뢰가 지속적으로 증가되

고 있다.

신법무사는 지난 “제53회(2016년) 법의 날”에 대통령을 대리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하여 개인의 명예와 기쁨은 물론 가문과 평산신씨 명예를 드높인 자랑스러운 장절공의 후손이다.

자타가 공인하는 우수한 법률실무 전문가인 신법무사는 우리 종종 소송사건에도 적극적인 도움을 주고 있고, 관할구 방위협의회, 경찰서, 청소년육성회에서 12년간 나눔의 미덕을 실천 하는 재능기부로 봉사를 하고 있으며 2008년 1월부터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2009년부터 서울고등법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으며 2018년 12월 법조협회가 주최하는 제17회 “법조봉사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현우 宗 인력개발학 박사 학위 취득 (근로복지공단 노동조합 서울본부장 취임)



현우(鉉祐, 이상공파 33세) 宗이 지난 해 8월 19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인력개발학 박사 학위를 받고, 2023

년 1월 1일 부로 근로복지공단 노동조합 서울본부장으로 취임했다.

아버지 인균(寅均)과 어머니 정선 전명옥(旌善 全明玉) 사이 1남 1녀 중 장남으로 출생해 서울 영일고등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학사),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석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석사)을 졸업했다.

宗은 1999년 근로복지공단에 임용되어 업무와 병행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계속 하였다. 그로 인해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 최고지도자과정을 최고성적으로 수료하여 노동부장관상 등을 수상하였으며,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표창장 등 여러 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향학의 열정으로 2019년 한국기술교대 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 인력개발학과 인력개발전공의 박사과정에 입학하여 "노동인권 지표 및 지수 개발에 관한 탐색적 연구"의 논문으로 2022년 8월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또한 2022년 10월 투표를 통하여 근로복지공단 노동조합 서울본부장으로 선출되어 1천여 서울 조합원의 대표가 되었다.

宗은 강사로도 열띤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강의 분야는 청렴교육, 노동인권, 노동법,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성희롱 예방, 리더십, 갈등관리, 복지, 퇴직연금 등이 강의의 주된 분야이다. 宗은 평소 종사에 많은 역할을 해온 아버지 인균(파종중 초헌관 향사봉행)의 위선의 뜻을 받들어 종종에기여하고 있다.

-제25회 아시아 태평양 민족음악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대철 宗 기조연설



한국학 중앙연구원 명예교수 대철(大澈 文僖公波 34世) 宗이 지난 3월 4일(토)부터 6일(월) 캄보디아 씨엠 립(Siem Reap)에서 개최된 제25회 아시아 태평양 민족음악학회(Asia Pacific Society for Ethnomusicology) 국제학술대회에서 "아시아 민족

음악학 어디로 가야 하나?"(Where Should Asian Ethnomusicology Go?)의 제목으로 기조연설을 하였다.

대철 宗은 기조연설에서 서양인에 의해 서양 중심으로 출발한 민족음악학(Ethnomusicology)은 그 이름을 가치중립적인 용어인 '지역 음악학(Area Musicology)'으로 개명하여야 하며, 아시아의 음악학자들은 아시아 정신에 기초하여 자국 음악연구에 더욱 매진하여 전 세계적 음악 연구에 공헌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하여 참가자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아시아 태평양 민족음악학회는 서양 중심의 연구 방법론에 기초한 민족음악학 연구를 지양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가치에 중점을 둔 전통음악의 보존과 연구를 목적으로 1994년 서울에서 출발한 국제적 학술단체이다.

宗은 서울대 음대 국악과 학사와 서울대 대학원 국악과 석사를 거쳐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문학 박사학위를 취득 강릉대학교 예술체육대학 음악과 교수로 봉직 중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 자리를 옮겨 한국학대학원 문화예술학부 교수를 역임하며 한국학대학원장 직무를 수행하였다.

『기획 시리즈』

삶의 뿌리. 아! 아버지 ~

우리의 선조들께서 살아오신 세거지와 집성촌이 개발로 사라져 가고 후손들마저 뿔뿔이 흩어져 그나마 구전으로 전해지던 흔적들마저 사라져 가는 안타까움에 전해오는 이야기들을 기록으로 남겨 보고자 기획 시리즈로 연재하려 한다.

이를 통해 각 종원간, 문중별, 종적, 횡적교

류의 장이 되기를 소명하면서 각 문중의 종원들께서 동참해주시기를 소망한다.

제6편 곡성 학교당(學古堂) 이야기

上系 : 15세 개(槩) ~

- 27세 대정(大貞) - 28세 綱 - 29세 의현(義顯) - 30세 정(挺) 1832~1906
- 31세 하희(夏熙) 1854~1935 호 균석(筠石), 학교당(學古堂)
- 32세 채균(采均) 1871~1942 - 33세 언승(彦繩) 1899~1975
- 32세 원균(源均) 1878~1904 - 33세 언준(彦準) 1902~1981
- 34세 형철(亨澈) 1933~



전남 곡성군 입면 입석리는 평야지역으로 마을 앞에 창정천이 흐른

다. 옛날 이곳에 선돌이 있어 "선돌"을 한자로 바꾸어 마을 명을 "입석(立石)"이라 하였다.

자연마을인 상립마을은 입석의 위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상립(上立)이라 칭하고 "웃선돌"이라고도 불린다. 마찬가지로 하립(下立)마을의 지명은 입석의 아랫 마을이라는 의미이고 "아래선돌"이라고도 칭한다. 마을 입구에는 "학교당"이라는 표지석이 자리한다.

도로에서 진입하면 우측 언덕에는 조선후기 선비였던 균석(筠石) 신하희(申夏熙, 1854~

1935)가 1901년 학문을 정진하며 후학에 심혈을 기울이기 위해 건립한 학교당이라는 정자를 만날 수 있다. 1941년 증손이 증건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 재실을 겸한 후손들의 모임장소로 사용되고 있다.

다음 글은 그의 후손인 광주 전 성균관 부관장, 광주향교 22대 典校 형철(亨澈 문희공파 34세)께서 提稿하여 그대로 옮겨 실는다.

학교당에 소장되어 있는 3책의 간찰첩(簡札帖)을 편집하여 탈초 번역한 책자로 총 5장으로 구성하였다.

1장을 구성하고 있는 「구옹필적(臼翁筆跡)」은 간재(艮齋) 전우(田愚)가 보내온 간찰을 첩으로 만든 것인데, 여기에는 신원균(申源均)과 신하희(申夏熙), 그리고 신언승(申彦繩)에게 온 간찰들이 들어 있으며 1900년부터 1922년 사이에 작성된 것이다.

2장을 구성하고 있는 「잠영동종왕복(簪纓同宗往復)」은 관직에 있는 평산신씨 동종으로부터 온 편지를 모은 것인데, 1866년부터 1903년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수신자는 학교당의 아버지 신정(申挺)으로 보인다. 여기에 수록된 관찰



은 신관호(申觀浩), 신응조(申應朝), 신응선(申應善), 신두선(申斗善), 신기선(申箕善), 신석희(申奭熙), 신좌희(申佐熙), 신택수(申澤秀), 신명선(申命善), 신응선(申膺善), 신석원(申錫元) 등이 보내온 것이다.

3장을 구성하고 있는 「학문가왕복서찰(學問家書札)」 원래의 책자에는 간찰과 문장이 섞여 있는데 동문이거나 교유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보낸 편지만을 뽑아 다시 편집한 것이다. 여기에는 신득구(申得求), 김준영(金駿榮), 황찬규(黃璨奎), 이희진(李喜璉), 정해직(鄭海直), 김종희(金鐘熙), 김준희(金濬喜), 김문수(金文銖), 김종가(金種嘉), 김효술(金孝述), 최병심(崔秉心) 등이 보내온 편지들로 1898년부터 1953년 사이에 작성된 것이며, 신언승에게 보내온 편지가 대부분이다.

4장은 낱장으로 남아있는 편지들을 모아서 구성하였는데 신언승이 누군가에게 보낸 편지와 김상희(金相曦)의 편지, 김동수(金東洙)의 시(詩) 이병은(李炳殷)의 편지, 그리고 최근에 신사범(愼思範), 봉기종(奉奇鐘)이 보낸 편지가 들어있다.

5장은 「학문가왕복서찰」 중 문장만을 뽑아서 재편집하여 만든 것으로 신하희, 신채균, 신원균의 행장(行狀)·묘문(墓文) 등과 신언승이 받은 기문(記文)·설(說), 그리고 보청(譜聽) 기타 보내온 통문(通文)들로 구성되어 있다.

곡성의 평산신씨는 고려개국공신인 장절공 신송겸(申崇謙)의 후손으로 대대로 곡성에 세거하는 곡성의 토성이다.

그러나 학교당 집안의 파조인 15세 개(槩)와 그 후손들은 평산군과 경기 오산 인근지역에 살다가 27세 대정(大貞) 때에 남하하여 곡성 죽곡화양리에 입향하였다.

학교당의 아버지 상춘재(常春齋) 신정(申挺)은 구암(苟庵) 신응조(申應朝)의 문하에서 수학하였으며, 간재(良齋) 전우(田愚)나 농산(農山) 신득구(申得求) 등과 사귀었다.

학교당의 신하희(申夏熙)도 아버지를 따라 홍직필(洪直弼)의 문하 사람인 신응조나 임헌희(任憲晦)와 신득구 등에게서 수학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가 아들들과 손자를 데리고 옥과 입석

리로 이거하였고, 아들 원균을 간재 문하에 보내 수학하게 하면서 자신도 집지(執贄)하여 배운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거하여 살던 곳에 학교당을 짓고 후학을 양성하였다.

학교당의 둘째 아들 신원균은 일찍부터 장래가 촉망되어 8세때 입학하였고 이후 농산 신득구의 문하에서 수학하였으며 1900년 신득구가 별세하자 간재의 문하에 들어가 수학하였지만 안타깝게도 요절하였다.

학교당의 손자 신언승 역시 할아버지의 명을 받아 간재의 문하에 들어가 수학함으로 3대가 명실공이 간재의 문인이 되었다. 학교당의 증손자인 형철도 노천(蘆泉)과 금재(欽齋) 문하에 집지(執贄)함으로써 4대가 한 연원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간재 문하에 들어가 수학한 사람은 신하희보다는 그 아들 신원균이 먼저였을 것으로 추정하는데 신원균에게 보내온 간찰 앞부분에 배접되어있기 때문이다.

간재의 간찰 중 1900년에 보내온 것이 가장 빠르는데 이 편지는 신원균이 스승이 돌아가신 후 간재에게 편지를 보내어 스승의 여러 설을 따라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물은 것에 대한 답장이다. 이를 보아 신원균이 간재 문하에 든 것은 1900년 무렵으로 보인다.

학교당이 간재에게 수학한 것은 직접적인 왕래보다는 아들 원균이 간재에게 오갈 때 의심난 점을 편지를 통해 물었던 것으로 보이며 직접 찾아간 것은 아들이 죽은 후에야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919년에는 죽은 아들 원균의 행장과 묘갈명을 간재를 통해 간재의 문인들에게 부탁하여 얻었다. 간재의 편지는 1900년부터 간재가 별세한 1922년까지 계속되었다.

본서에서 번역한 간찰집은 바로 신언승이 젊었을 때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러한 책자를 신원균의 손자인 형철(亨澈)이 줄자를 찾아와 탈초 번역을 부탁하고 길이 전해질 것을 도모하였다. 형철은 일찍부터 가문을 위해 노심초사하여 1981년에는 10년간의 각고 끝에 덕양서원과 용산단 일원을 지방문화재 56호로 지정하여 두 곳 다 크게 준공케 하였으며 1992년에는 학교당을 이중건(移重建)하고 이를 기념하여 여러 사람들로부터 상량문(上樑文)과 기문(記文) 및 차운시를 받아 『학교당제영집』을 편찬해 내었으며 또 같은 해에 백부인 신언승의 문집 『석봉유고(石峰遺稿)』와 『지장록(誌狀)』

錄』을 편집 간행 했다.

이밖에도 7대조부터 각 묘소(墓所)에 마다 매번 웅문석학(雄文碩學)에게 묘문(墓文)과 기실문(記實文)을 받아 입비(立碑)한 일도 빠짐없이 다하였다.

또한 광주향교 전교와 성균관 부관장을 역임하면서 유도발전에 크게 기여한 바 있기도 하며 서석음 사장과 재동 서원장과 노사선생 고산서원 모임인 풍영계장을 역임하면서 학교당 백주기념식(百週記念式)을 가진 바도 있었다.

학교당 유적이 얼마 남아 있지 않은 것은 그의 중형 성철(聖澈)이 국민학교 시절에 동네 앞에 세워져 있는 신사(神社)를 뽑아 분향통에 빠뜨려 버린 일로 인해 지서장이 그 부친 연승을 연행하여 20여일 동안 감옥에 구류했고 누대로 전해온 유고와 경전들을 빼앗아간 까닭에 남은 문서가 거의 없다고 한다. 형철은 이제 살아갈 날이 얼마 남아있지 않음을 알고 생애에서 마지막 소원으로 남아있는 학교당 유적이거나 모아 번역 출판하고자 한 것이다.

시대가 날로 변해가고 있지만 후손들은 선인들의 이러한 추모의 정을 잊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2018년 4월 [문학박사 권수용]

學高堂은 申筍庵(신구암) 문인 常春齋 挺(정)과 田良齋 문인 筠石(균석), 夏熙(하희)와 田良齋 문인 改勉齋 源均(원균)과 田良齋 문인 石峯 彦繩(언승)과 崔欽齋(최금계) 재문인 立軒 亨澈(형철)과 申石峯 문인 石堂 明澈의 講學 處임.

“도록 명칭 검토 알림”

지난 종보 제197호 4면(우 하단)에 게재된 “평산신씨 시조 장절공 중증” 도록은 강원도 강릉에 소재하고 있는 울곡연구원에서 강원권역 국학진흥을 위해 지역 전통문화보존과 그 지역의 기록 유산을 집성, 연구 보급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을 지원을 받아하는 사업이다.

대중중은 1100년위원회에 4개 분과위원회의 역사 문화 분과위원회 사업의 일환으로(재정, 경제, 미래교육, 대외, 홍보) 우리 춘천 기념관에 보관하고 있는 문헌들이 사각(소외)지대에서 훼손, 멸실될 우려가 있어 전문연구기관의 체계적인 조사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2차에 걸쳐 울곡연구원에 현장 방문을 요청하여 자료를 차람하였다.

이 과정에서 타 문중이 문중도록을 발간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대중중도 사장되고 있는 문헌들을 세상밖

으로 들어내어 당시 조상들의 의식세계와 가치관이 담긴 기록 유산들을 가까이에서 보고 온고지신해야겠다는 사명감으로 울곡연구원에 도록발간을 의뢰하였다. 이 후 울곡연구원의 심의를 거쳐 2022년도 9월 경쯤 발간 소식을 접하고 한정된 수량을 2023년 4월12일 배정 받았다.

발간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도록 명칭은 연구원과 충분한 소통과정을 거치지 않아 종원 모두의 눈 높이에 맞추지 못하는 우를 가져왔다.

이에 대중중은 지난 6월 1일 울곡연구원을 방문하여 원장과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논의하는 등 연구원의 양해를 구한 바, 도록 명칭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범위에서 일부 수정할 수 있도록 동의를 받은 바 있다.

대중중은 이를 바탕으로 여러방안을 두고 심사숙고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인사

▶ 서울시화수회 회장



- 申正龍(문화공 33세손)
- 1957년 2월 4일 생
- 경희대 산업정보 대학원 졸(공학석사)
- ㈜세화파렛트 / 로지스콜 인터내셔널㈜ 대표이사
- 로지스콜 상하이 총괄사장
- 선임 2023년 5월 30일

▶ 인천시화수회 회장



- 申重均(정언공 32세손)
- 1940년 9월 28일 생
- 인천광역시 장학사, 교장
- 검찰청 조정위원장
- 인천삼락회 회장 / 황조근정훈장
- 선임 2023년 3월 9일

▶ 광주·전남화수회 회장



- 申士鉉(문화공 33세손)
- 1957년 8월 20일 생
- 승의과기고 교장 정년퇴임
- 광주·전남화수회 사무국장 / 청장년회장
- 용산단중중 감사
- 선임 2023년 5월26일

▶ 부산·경남화수회 회장



- 申昌烈(제정공 34세손)
- 1959년 8월 9일 생
- (주)창신 설립
- 한국생산성본부 부울경 총교류장
- 중소기업부 장관 賞
- 선임 2023년 4월 29일

2023학년도 2학기 장학금 지급 안내

2023학년도 선정된 대중중 장학생 2학기 장학금이 8월 20일 전 후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해당 대학생은 재학증명서, 1학기 성적증명서 각 1통을 8월 10일까지 보내주시고, 장학금을 수령하면 학교에 등록하고 영수증 사본을 9월 15일까지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만 미등록이나 성적 미달(전 성적보다 10%이하) 시에는 장학금이 중단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춘천 시조 장절공 추향대제 안내

금년도(계묘년) 시조님 추향대제는 10월23일(음 9.9)입니다. 각 파종중·소문중 및 시, 군, 구화수회에서 많이 참제해 주시고, 특히 향사 준비를 위해 **10인 이상 참제하시는 문중, 화수회 단체**는 반드시 참석인원을 10월 5일까지 대중중(문화국장 010-6522-6700)으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당일 행사 : 영당의식(07시), 묘제봉행(11시)
- 장소 : 춘천시 서면 신송검로 272-21 (신송검묘소)

2023년 8월 ~ 10월 행사 안내

- 8월 20일 : 이전 2학기 장학금지급
- 9월 26일(화) : 덕양서원추향사(음8월 중정일)
- 10월 1일(일) : 승의전 추향사
- 10월15일(일) : 모영제 향사 (음 9.1)
- 10월23일(월) : 시조 장절공 추향사(음 9.9)
- 10월26일(목) : 용산단 향사(음 9월 중정)
- 10월31일(화) : 종보 190호 발행 예정

바로잡습니다.

종보 제197호

1쪽 개인 헌성금 소계 2,780,000 ⇒ **2,880,000**
총계 10,010,000 ⇒ **10,110,000**

2쪽 우측 上 高 유문 7줄 玆值 ⇒ **慈敢**

7쪽 우측 상단 (정영숙) 상계 문화공파 33세 ⇒ **전서공파**

16쪽 종보성금 우하단 정섭(알수없음) ⇒ **경기 분당**

종보 성금 보내주신 분 (2023.4. 26 ~ 6. 30)

성금을 보내주신 종원님께 감사드리며, 알뜰하게 잘 쓰겠습니다.

개 인

현식(경기 의정부)	20,000	대철(경기 성남시 분당)	100,000
용덕(?)	50,000	호현(서울 배화여중)	100,000
무철(강원 양구)	30,000	대성(대전 서구)	20,000
경철(전북 전주)	30,000	숙조(서울 관악구)	30,000
성신(서울 강동구)	20,000	용수(서울 도봉구)	100,000
서현(경기 일산)	100,000	영철(경기 광명시)	50,000
동철(서울 중랑구)	50,000	진부(?)	50,000
문철(충남 천안)	20,000	언요(서울 동대문구)	50,000
재수(경기 김포 통진읍)	30,000	현우(서울 도봉구)	20,000
용균(강원 삼척)	20,000	옥현(서울 강북구)	20,000
기봉(경기 평택)	20,000	현호(광주 서구)	40,000
승수(광주 북구)	20,000	상원(광주 서구)	40,000
상욱(광주 서구)	40,000	정섭(경기 성남)	30,000

파종중

이상공파종중	100,000	표충재종중	100,000
용산단종중	100,000		
(용산단지발간위원회)			

소 중중

곡성 원노문중	50,000
---------	--------

시, 군, 구 화수회

공주시화수회	160,000	진주화수회	100,000
문경 문화공파 우지종중	100,000	영주시화수회	100,000

총 계 : 1,910,000원

<종보 배부 기준 및 성금>

- ★ 파종중·시·도화수회 : 50부 년 100,000원
- ★ 소중중·시·군·구화수회 : 20부 년 50,000원
- ★ 중 원 : 1부 년 20,000원

* 종보가 부족할시 10부당 성금을 20,000원 추가함.

종 보 성 금 : 하나은행 101-910005-90004 (평산신씨 대중중)
농 협 301-0202-9520-11 (평산신씨 대중중)
전자대동보 : 하나은행 027-766111-23504 (평산신씨 대중중)
우 리 1005-103-123259 (평산신씨 대중중)
구 독 신 청 : 02)776-6111 .776-6151

▶ 계좌 송금시 : 지역명을 반드시 표기 바랍니다. ◀